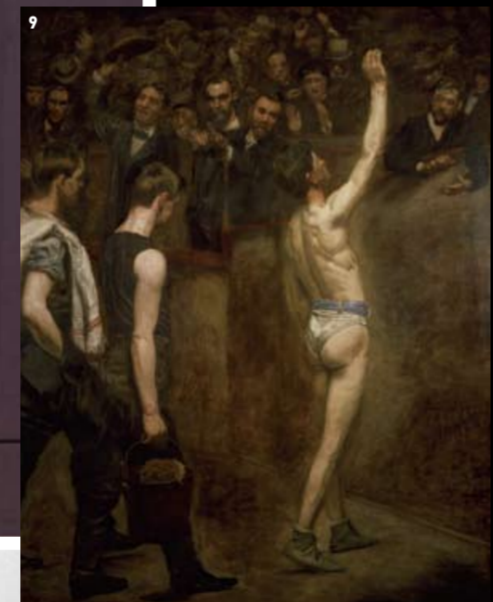


LGBTQ 현대미술, 역사적 전개와 그 이후

저마다의 서사로 편견을 깨면서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겨온 영국, 미국과는 또 다른 방식과 길을 지닌 한국의 퀴어 아트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라를 펼치고 있다. LGBTQ 현대미술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한국 퀴어 아트의 현주소를 미술 연구자 임근준이 전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영국식 LGBTQ 서사

흔히 퀴어(queer)로 통칭되는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 미술을 다룬 초기 논객들은 과감하게 르네상스 시대나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성애라는 개념과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널리 유포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동성애의 인격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동성애자라는 하위 주체로서의 정치화를 위한 기제(機制)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논리에 쫓겨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자신의 동성애를 방증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나선 시간을 되짚어보면 현대적 동성애자로서의 자의식은 이미 19세기 말 유럽 사회에 널리 형성,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동성애자 문화는 주류 사회의 가치와 심하게 부딪혔다. 영국의 아부노보와 운동을 함께한 오스카 와일드와 삽화가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의 토포적 유미주의는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를 이겨내지 못했다. 보수적 영국인들은 당시 오스카 와일드와 그의 동료들이 추구한 현대성을 씩어빠진 대륙에서 잔염된 외래문화라고 확신했고, 이후 영국 사회는 오래도록 이방기르드를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 미술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영국인들은 이방기르드 예술에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를 투사했)라고. 따라서 동성혼 범죄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의 영국 평에서 출간되는 관련 연구서나 전시는, 오스카 와일드의 복권(復讐)과 명예 회복에 방점을 찍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면, 역설하게 스페르도 물린 과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탄압받다가 자신한 비운의 천재 과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 사건을 위시한 온갖 과거사 문제를 거쳐 전후 현대미술의 영웅인 로버트 라우센버그, 로버트 프랜시스 베이컨을 영웅시할 수도 있으며, 영국식 팝아트의 의제를 미국에 전파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를 미술사의 원죄에 얽힐 수도 있다. 또 에이즈(AIDS) 암흑기로 불릴 정도로 대위기를 겪은 1980년대에 정치적 역병의 가시화와 사회 의제화에 앞장선 2인조 작가 그를 길버트와 조지(Gilbert & George)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4월 런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개막한 〈퀴어 브리티시 아트(Queer British Art): 1861~1967〉전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국식 서사다.

동성애 인권 운동을 촉발한 '스톤월 항쟁'

미국의 서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점에 일어난 '스톤월 항쟁'이다. 1969년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클럽인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성 소수자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작된 이 소요 사태는 전후 미국 게이 사회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었다(스톤월 인은 지난해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현대적 양태의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므로 미국인들은 '1969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간되는 LGBTQ 미술 연구서나 이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역사 회고전도 1969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고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스톤월 혁명 이후 북미 지역에서 전개된 LGBTQ 운동은 커리어웃을 앞세워 가시화(可視化) 증진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스톤월 혁명 이전의 LGBTQ 예술을 고찰할 때도, 미국인들은 가시성을 키워두는 심으려고 하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미국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열린 〈숨기/찾기: 미국인 초상에서의 차이와 욕망(Hide/Seek: Difference and Desire in American Portraiture)〉전이다. 연구를 통해 게이 정체성이 확인된 미국 사실주의 가장 토머스 에킨스(Thomas Eakins, 1844~1916)와 초상화가 존 싱어 사젠트(John Singer Sargent, 1856~1925)의 초상으로 사적인 이 전시는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활약했던 인물들 거쳐 전후 현대미술의 영웅인 로버트 라우센버그, 제프 존스, 앤디 워홀, 애그니스 마틴 등을 망라했다. 하지만 이 전시에서 단연 강조된 기점은 역시 1969년 스톤월 혁명! 1970년대에 하위문화의 요소를 전유해 하이 아트(high art)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게이 미술가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1980년대의 에이즈 대위기에 맞서 싸운 역사 자체를 영웅시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전사의 진짜 주인공은 커리어웃한 성 소수자나 그에 준하는 주변인으로서 주류 사회의 가치 변화를 이끌었던 키스 해링, 데이비드 워너버트,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캐서린 오피 등의 아티스트였다.

북미 포스트모던 LGBTQ 작가들

전후 모더니즘에 반발한 북미 포스트모던 1세대 LGBTQ 미술인들은 다양한 기호학 이론과 문화 비평 이론을 동원해가며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전유해 원본을 비평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 이론으로 대 전환의 모멘텀을 일군 이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사진 이론가 수전 손태그

(Susan Sontag)였다(그의 연인 가운데 한 명이 스타 사진가 애니 레보비츠였다). 또 퀴어 이론가로 활약한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사진술을 이용해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호학적 메타-비평으로서의 다매체 미술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담론과 큐레이팅으로 입증해냈다. 크림프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의 문제적 작가로 떠오른 이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통하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이다. 20세기 후반기에는 LGBTQ 미술의 팬도가 크게 넓혀졌다. 1980년대 후반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의 게이 미술가가 연이어 세상을 뜨고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탈냉전 시대가 펼쳐진 데 따른 현상이었다. 미셸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의 이론을 대안적으로 앞세운 퀴어 미학의 특성에 힘입어 최후의 왕좌를 차지한 주인공은 쿠바계 이민자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élix González-Torres)였다. 정치적 개념 미술가들의 협업체였던 그룹 머티리얼(Group Material)에 참여했던 그는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줄리엣 알트(Julie Ault)에게 정치적 개념 미술의 방법론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재치한 상황에서 퀴어 미학의 논리를 성립시키는 특이한 전략을 고안해냈다. 여타 LGBTQ 미술가들이 하위문화의 자극적 이미지로 주류 사회를 도발해온 것과는 정반대 행보였다. 2000년대에는 관계 미학의 방법을 활용해 대외적 영역을 개척하는 '포스트 퀴어(post-queer) 미술가'가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올헤 이스탄불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기도 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의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 21세기의 전 지구화라는 문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상황을 연출해온 이 스칸디나비아인 듀오는 미술 전공자가 아닌 자신들의 배경엘름그린은 시인, 드라그셋은 연극 연출가 출신을 일종의 특권으로 삼아 현대미술계 자체를 풍자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웹툰, 그래픽, 동양화...

'마이웨이'를 걷는 한국식 LGBTQ 시각 문화. 그렇다면 한국의 21세기 LGBTQ 미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일단 눈에 띄는 경향은 민화다. 특히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특색하는 가운데 게이 민화를 통해 독자성을 확보해가는 창작자 진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2007년 결성된 이래 퀴어 민화 동양화를 제작하는 아마추어 게이 민화가 그룹인 프로젝트 웡이 있다. 현재 인지도를 켜진 인기 민화가는 2인. 공화도 출신으로 학승지 민화체를 바탕으로 '동성극장'을 연하며 한국식 게이 코미드를 펼치고 있는 변천(1976년생), 그리고 로맨스는 없더라도 히트 작품으로 알려진 작가로 손꼽히는 정서로 게이 민화를 창작하고 있는 이우인(1983년생)이다. 둘 모두 전시 활동을 병행하고자 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이우인의 출판 기념 시인회에는 많은 게이 팬이 모이기도 했는데,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민화와 유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법으로 회화 작업을 전개하는 진화환(1984년생)도 주목할 민화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장상으로 커리어아웃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테마로 창작 활동을 펼쳐가는 작가로는 네 번째 정도 되는 젊은 작가다. 변천, 이우인, 진화환 모두 게이 운동 조조파(애이즈 운동 단체를 위해 꾸준히 창작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점도 앞 세대 의 모습과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인에도 나름의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이다. 커리어아웃 동성애자로 퀴어 마음을 드러내는 창작을 시도하는 이가 여러 있지만, 그중 가장 특출한 사례는 행방사범을 설립한 디자이너 박철호(1988년생)를 꼽을 수 있다. 국내 1호 퀴어 사업으로서 LGBTQ 관련 서적, 굿즈 등을 판매하는 행방사범은 LGBTQ 공동체의 대안적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최근 '행방총서'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책을 운영하기도 했고 '행방총서 제1권 (목사 아들 게이)'을 출간하면서 서울 한남동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작은 규모로나마 출간 기념 전시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미학적 차원에서 보다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있다. 흥미롭게도 전통 회화의 '퀴어한' 측면을 전유해 나타낸 퀴어화를 이룩하는 동양 화가들이다. 이 계열에서 제일 먼저 행보를 펼친 작가로는 퀴어 어법을 포스트 퀴어 차원에서 구체화해낸 이상재(1981년생)인 동양화가 김화현(1978년생)이 있다. 반면 전통 불화의 어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게이 남성들의 나르시즘을 포착하기 시작한 남성 게이 화가 박그림(1987년생)은 그에 대비되는 기대주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미술'로 꽤 유명한 '포스트-포토리얼리스트(post-photorealists) 화가 정종민(1988년생)도 특이한 사례다. 언뜻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세밀하고 극명한 화면 구성을 하는, 흔히 정찰수 있는 포토리얼리즘 계열의 그림을 그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이상이다. 조각성으로만 모습이 전해져온 과거의 인물에 사진으로 수직한 피부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가상적 하이퍼리얼리티의 초상화를 완성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퀴어-연극적'이다. 독자적 문법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종민의 초상 연작은 세익스피어 연극인 그의 면모와 연관성을 지니는 듯하다. 세익스피어 연극이 가진 사의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은유하는 일을 즐겨 하는 것처럼 그는 캐리커와 기차 혼전성을 구현하는 포토리얼리즘의 어법으로 가시적 정체성의 표피와 그 이면을 탐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국제적 교류와 무관하게 한국식 LGBTQ 시각 문화는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토착적 차원에서 새롭게 싹을 틔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생과 1980년대생 창작자도 주도하는 이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지, 그리고 1990년대생 창작자는 이에 어떤 식으로 결합하게 될지, 다른 어느 지역과도 다른 한국의 퀴어 미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글 임근준(미술·디자인 이론/역사 연구자)

